

칼럼

장기채 주필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 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진다 전망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니 뭘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

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 84%(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82.4%),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 되는 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차츰은 게 한국인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

고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대주택과 주택금융, 각종 세목을 점목시켜 평생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될 것이라는 '인구 위기'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던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이고 교육, 안전, 고용, 보건의료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社 說

출산율 하락세 잡아야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기 수)이 분기별 출산율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걱정이 크다. 해당 기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7만3,000여명에 불과해 3분기 기준 5년 연속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9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8명 감소했다.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96명) 처음 1명 아래로 진입한 뒤 1년 만에 0.9명 선마저 깨졌다.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0.89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기록이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전남(0.10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떨어졌다. 충북(-0.17명), 세종(-0.16명), 충남(-0.12명)에서 감소폭이 컸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에 진입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올 들어 1~3분기 모두 전년 동기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탓이다. 올해 7~9월 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 수는 7만 3,7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87명(8.3%) 줄었다. 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10만8,263명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해왔는데 8만 명 선마저 무너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한 23만 2,317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4분기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2% 이상 줄어들게 되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 미만이 될 수도 있다.

향후 출산율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3분기 들어 감소폭이 완화됐지만, 여기엔 신고가능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특이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만 5,8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급증했다. 이에 따라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 3,320건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날로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의료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추워진 날씨, 난방기구 화재주의보

날씨가 점차 추워지며 전기장판이나 히터 등 각종 난방용품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12월~1월에 난방기구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다.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기구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장기간 보관된 난방기구 재사용 시에는 고장 여부, 전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콘센트와 플러

그를 연결할 때 접속이 완벽하게 되도록 꼭 누르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전기 난로, 전기장판, 히터는 전원 끄기를 습관화해야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거나 라텍스(천연고무)와 함께

사용 시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전열기구 주변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 같은 인화 물질을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에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간색 시험 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간색 시험 버튼

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전원이 차단돼 정상 작동하는 것이다. 스위치가 내려와 전원이 차단되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전기공사 업체에 의뢰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편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구도 부주의한 사용으로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조그만 관심과 안전수칙 실천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자.

김한다 /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